

■ '팀제 도입 1년' 강진군 어떻게 달라졌나

일 질질 끌고 목에 힘주는 공무원 사라졌다

“공직사회도 사기업화만이 살 길이다” 인구가 4만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자치단체 강진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팀제를 도입, 지난 1년간 공직 사회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시행 초기엔 팀제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으나 지난 1년간 강진군이 이룩한 성과를 보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강진군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변화를 들여다 봤다.

결재단계 줄어 들고 개인별 평가

32개 상 휩쓸어 특별지원금 2배

▲결재, 4단계→3단계 축소= 강진군은 지난해 5월 7일 드림팀제를 도입, 기존의 13개 실과 56담당을 1실 25개 팀으로 개편했다.

장 ‘빠꾸기(다른 새의 동자에 알을 낳는 새)족’도 사라지는 효과를 거뒀다. 임준형 강진군 조직관리팀 차장은 “팀제는 모든 업무 평가가 개인적으로 이뤄지고, 철저히 계량화된 지표로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제도”라면서 “그만큼 담당 업무자의 일에 대한 부담이 높긴 하지만

일에 대한 성취도도 높다”고 말했다. ▲정부 시상금 24억원 받아= 강진군은 드림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각종 정부 평가에서 24억원의 시상금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다 두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군수도 팀제 평가 대상= 팀제 도입을 주도했던 황주홍 군수도 평가 대상이다. 군수와 부군수, 4급인 기획정책실장이 한 팀이다.

주요 수상실적은 ▲지방재정운영 평가 최우수상 ▲기획예산처 주관 군특예산운용성 평가 최우수상 ▲지방자치경영대상 최우수상 ▲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 최우수상 등 모두 32개 분야다. 또 정부특별교부세와 특별 지원금도 78억원이나 쉰겼다. 이는 팀제 시행 이전 평균 35억원 안팎보

다 두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군수도 팀제 평가 대상= 팀제 도입을 주도했던 황주홍 군수도 평가 대상이다. 군수와 부군수, 4급인 기획정책실장이 한 팀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씩 정기 회의를 열고, 군정에 대한 자체 평가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 조치하고 있다. 그만큼 업무량도 늘었다. 이 때문에 황주홍 군수는 ‘얼굴 내밀 기식’ 관내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황 군수는 “행사에 군수가 참여하는 시간만큼 주요 군정에 대한 결재 등도 늦어져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면서 “팀제 시행 초기엔 군수가 관내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요즘은 군민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오히려 격려를 해 많은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함평 나비엑스포 하루 입장객만 郡 인구 2배

11일 8만5천명 몰려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하루 8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엑스포 개장 이후 최대 입장 기록을 세웠다.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는 석가탄신일 연휴 둘째 날인 지난 11일 엑스포 행사장에 함평군 전체 인구가 3만8천명의 2배가 넘는 8만5천24 명이 입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또 엑스포 관람을 위한 차량 행렬이 러시를 이루면서 이날 하루 2만5천여대의 차량이 주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특히 이날은 오후 3~4시계면 인파가 줄어들던 지난 어린이 날 연휴와



달리 오후 6시가 넘는 시간까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직위측은 관람객들이 대거 몰리자 셔틀버스 5대와 트램카(나비열차) 2대를 주차장에서 행사장 구간까지 특별 운행하고 7시까지 관람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4079@

“곡성 국도에 경찰들이 경례 붙이네요”

17년 국도인 곡성역과 압록역 사이 15km 구간 삼진강변 도로에서는 평일은 물론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경찰들이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차량 운전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반기는 보기 드문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찰이 운전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허남석 총경이 곡성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부터. 허 서장은 이 지역이 관광지인 만큼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교통지도를 제안, 매일 근무 경찰들이 경례와 손을 흔들며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 구례에 거주하며 매일 사업차 이곳을 지나는 김모씨(54)는 “처음에는 어리둥절 했으나 이제는 친근감

이 생겼다”며 “이동 카메라를 숨겨 놓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피는 일부 경찰들과 너무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곡성경찰서 교통지도계 임동표경사는 “차를 세워놓고 무슨일이 있는 나고 묻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관광객과 운전자들이 손을 흔들어 답례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못자리 없이 벼농사

농기원, '무논 골 점뿌림 직파재배' 연사회

미리 싹 틔운 벼씨를 바로 뿌려 못자리가 필요없는 새로운 벼농사 기술이 보급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9일 장성군 남면 월정리에서 쌀 전업농가 등 관계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논 골 점뿌림 직파재배' 연사회를 개최했다.

농기원은 이 기술은 씨를 잘 물에 흠뻑 적어 파종해 기존 답상 상태에서 법씨가 파종돼 기존 답상 직파법과 달리 잘 쓰러지지 않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 승용이앙기보다 파종기를 부착해 활용할 수 있으며, 1회 작업시 6~10줄이 동시에 파종돼 10분이면 10a에 파종을 마치는 등 최고 32%까지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장성군 남면에 50ha 규모의 시범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대규모 직파재배 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

장성군은 농청과 읍·면사무소 등 전체 담당직 125명으로부터 현안사업 등에 관한 토론회를 제출받아 월별 토론회 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전·현직 담당과 관심있는 직원들로 매달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성=장필수기자 bungy@

'담당급 토론회' 신설

장성군, 월 1회 개최

장성군이 군정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담당자(6급)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 '담당급 토론회'를 신설한다. 일선 시·군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장성군은 농청과 읍·면사무소 등 전체 담당직 125명으로부터 현안사업 등에 관한 토론회를 제출받아 월별 토론회 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전·현직 담당과 관심있는 직원들로 매달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성=장필수기자 bungy@



화순 능주초 '축구 명문'

각종 대회 석권

화순 능주초등학교(교장 윤승정) 축구부(사진)가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축구 명문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을 받고 있다. 지난 91년 전국 면단위 초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축구팀을 창단한 능주초교는 전교생 200명 가운데 축구부 선수가 33명으로 고학년 남학생 절반이 선수로 뛰고 있다.

능주초교 축구부는 지난 2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칠십리 대회'에서 우승한데 이어 지난 달 말 한국 대표 단일팀으로 출전한 '제 9회 한·일 우호친선 축구대회'에서도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능주초 축구부는 수업과 훈련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선수들은 모두 수업에 참여한 뒤 오후 4시부터 짧고 강한 훈련으로 개인기와 팀워크 기술을 익히고 있다. 천수경 축구부 감독은 “화순에 하루빨리 중학팀이 창단돼 체계적인 선수 육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능주초교 축구부는 지난 2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칠십리 대회'에서 우승한데 이어 지난 달 말 한국 대표 단일팀으로 출전한 '제 9회 한·일 우호친선 축구대회'에서도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팀의 주축인 공격수 나상호(6년)는 칠십리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으며, 양지원·주원(6년) 쌍둥이 형제들도 뛰어난 활약을 펼쳐 전국 중학팀 감독들의 주목

완도 수산고등학교

7일간 원양 항해 실습

완도 수산고등학교(교장 선병오) 학생들이 7일간의 원양항해 실습에 나섰다. 완도 수산고 2학년 기관·조선계열 학생 23명과 미국 자매결연학교인 브리지포트 직업양식 학교 교사와 학생 6명은 12일 실습선 청해진호(444t)에 승선, 출항했다. <사진>



완도 수산고는 승선실무 경험을 쌓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2차례 원양항해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번 원양항해 실습기간 중에 일본 대마도의 한국역사 탐방을 비롯해 자매결연 학교인 나가사키 학양고(전 나가사키 수산고)를 방문, 학술교류 및 상호토론회, 스포츠 교류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완도 수산고는 자매결연 학교인 중국 산둥성 영성시

위해 수산학교와 미국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직업양식 학교, 일본 나가사키현 학양고 등과 매년 교환 방문을 통해 수산교육 선진화와 국제화에 교육에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수산전문 명문고로 자리매김한 완도 수산고는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의 수산계 학교 컨소시엄을 구성, 상호교류에 의한 수산교육 국제화에 나서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2008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광주에서 제3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 2008. 5. 17(토) 오전 9시 개최식. 장소: 68백주 광주공청 운동장.

법 전기계의 회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제3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 주관: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주최: 광주광역시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전남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관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광주 전남지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